



정읍시,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 숙박시설 '눈길'

정읍시가 봄 벚꽃철을 맞아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형 숙박시설 4곳이 따뜻한 마을 여행의 거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시설은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조성돼 현재는 지역의 정과 이야기를 품은 마을형 체류 공간으로 성장했다. 게스트하우스 3곳과 독채형 숙박시설 1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깨끗한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메이플 게스트하우스(청수길 52-1, 063-537-0025), 새아이트브리즈 내 다동게스트하우스(새암길 31, 063-537-0025), 달하노피골 캡슐호텔(서부산업도로 287, 063-700-8200), 마을사랑채(연지3길 199) 등 총 4곳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 나운2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내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통장의 세심한 관찰로 시작됐다. 평소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집 안쪽에 악취와 쓰레기 적치 징후가 보이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통장이 해당 가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신속히 선정하고 지원에 착수했으며, 행정복지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지원 △관리소 및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의 폐기물 수거 및 시설 유지보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나운2동 부녀회의 노력봉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나운2동 부녀회원들은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현장에 따뜻함을 더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김제소방서, 청명·한식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욱)는 4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은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김제소방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연기나 불씨 등 위험요소를 조기에 탐지해 초기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 결속 다져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남원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양성복, 허경이)는 2일, 남원반도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과 가족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대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및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에 요원으로서의 소방기술 능력을 향상해 조직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전직 연합회장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인 사천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방재 활동에 앞장선 우수 대원들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으며, 2부 기술경연대회는 그동안 갈고닦은 소방 기술을 종목별로 겨루며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3부에서는 대원 간 친목을 다지고 지역 안전을 위한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철희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는 곧 남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자부심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진안 주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주민 호응'

공예·파크골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진안군 주천면 2026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위원장 김종길)이 주민들의 호응속에 시작되었다. 먼저 하드웨어사업은 매입한 구 건물 철거를 2월에 마치고 2026년 내 목욕탕, 빨래방 등 준공을 목표로 3월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수요 맞춤형 공예 프로그램을 2개 마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한지공예, 가죽공예, 천공예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주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파크골프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돼 수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주천 초등학교 11명과 교사들이 함께 하는 이번 수업은



11월까지 매월 1~2회 주천생태공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주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될 예정으로 살기좋은 주천면을 만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읍, 자연식품 제83호 착한가게 선정 현판 전달식

부안군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경)는 2일 자연식품(대표 남정수)을 방문해 제83호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남정수 자연식품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정수 대표는 평소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과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선정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착한 가게 선정에 의미를 더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홍보 강화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및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안내를 넘어, 실제 주행 중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사항을 바로잡고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계도 및 단속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속차정원 초과, 인도주행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주행 중이나 신호 대기 중에도 안전 수칙을 상기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교차로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 부안서 영농폐기물 수거

전북농협이 육성하는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가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나섰다.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는 2일 부안군 일대에서 '농심천심'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 10여 명이 참여해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폐농약병 등을 직접 수거하며 농촌 환경오염 예방에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곳곳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정리하며 깨끗한 영농환경 조성과 쾌적한 마을 환경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6년 11월 23일 등(2기) 동북면호 전북 가00116 (063)912 전주사 온누리 7 리내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원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886 완산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4227 진안지사 433-3084 순창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886 정읍지사 556-5787 사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33-6844 순창지사 663-0444 정수지사 010-3382-6157 호지지사 010-6645-9856 군산지사 010-8229-65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오산지사 663-9923 고창지사 663-688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